

유성구 비전대센터장, LINC 3.0 어워드 이사장 표창

전주비전대학교 유성구(전기과 교수) 센터장이 '2023 LINC 3.0 어워드(Award)'에서 LINC 3.0 사업 유공자로 인정받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유 교수는 LINC 3.0 사업을 기획하고, 기업협업센터 구축 및 기업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지역 산업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이번 LINC 3.0 사업 주요 키워드인 공유·협업 및 기업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협업센터(KC)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맞춤형 애로기술지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수행 타 대학 및 기관과 우수성과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유성구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식인력 기반의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LINC 3.0 사업의 우수 성과 발굴 지역 산업체 경쟁력 제고 및 기업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실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7일 김제성덕초등학교에서 낡은 외벽을 꾸미는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을 은혁기 교수(초등교육과)의 지도하에 예비교사들이 주축이 돼 초등학생 등 60여 명이 참여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었다.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은 기초작업으로 벽화장소 선정 및 벽화전문가의 밑그림 그리기, 집단미술치료를 활용한 벽화그리기 특강을 실시한 후, 협동작업으로 재학생 현장교사, 초등학생이 직접 밑그림 위에 채색했다.

은혁기 교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벽화그리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 공동체 문화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병춘 총장은 "대학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 부남면서 사랑의 연탄 나눔

무주군은 부남면 유영마을 주민 황덕연 씨가 10월 말경 부남면 지역 내 난방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연탄 3백 장을 기부해왔다고 밝혔다.

연탄은 부남면행정복지센터(면장 박규) 직원들과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영근) 위원들이 함께 부남면 장안마을 고 모 어르신(72세) 집에 전달했다. 17일 진행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는 주민들 10여 명이 동참해 훈훈함을 더했다.

연탄을 기부한 황덕연 씨는 "난방을 LPG로 바꾸면서 남은 연탄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출제 제내시는 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라며 "이를 면사무소 직원들이랑 주민들이 날이 추운데도 한마음으로 나서서 배달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연탄을 전달받은 고 모 어르신은 "갑자기 추워져서 걱정이 많았는데 창고에 연탄이 쌓이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며 "연탄 보내주시는 분, 배달해주신 분들의 고마운 마음 다 잘 받아서 겨울을 따뜻하게 잘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은 모두 11명으로 이들은 부남면 지역발전과 사회적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해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청소와 이불 빨래, 사랑의 배미 나눔 등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우리 지구, 푸르게 푸르게'

남원시사회복지관, 어린이 환경영화제 개최

남원시사회복지관은 지난 17일 오후 6시, 남원시 속고개로에 있는 비분책방 2층에서 제1회 푸른 별 영화제를 개최했다.



푸른 별 영화제는 2023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한 주제 공모사업(기후 위기대응)의 일환으로, 남원시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지구 : 푸르게 푸르게'라는 주제로 '어린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영화제'를 탄생시켰다.

환경에 관심 있는 노암초 4, 5학년 학생 15명이 기획단이 되어 남원시 환경과에서 실시하는 환경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사회부터 오프닝 공연, 경품 추첨 등의 이벤트까지 손수 준비하였으며, 초대장과 포스터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번 영화제는 미래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영화제 기획단이 되어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미래의 주인공 아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했다는 점이 매우 뜻깊었으며, 앞으로도 남원시사회복지관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우리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스쿨버스' 패럴스마트폰영화제 우수제작상 수상

장애인인권연대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제작한 단편영화 '스쿨버스'가 지난 17일 열린 제6회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에서 우수제작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스쿨버스'는 지난해 발생한 전주의 특수학교 장애인학생 사망사건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5살 어린이 장미의 언니인 연우는 특수학교에 다닌다. 연우는 학교가 끝나고 담임교사의 품에 안겨 스쿨버스에 탑승한다. 통학 지도사는 연우가 평상시와 다름을 눈치채고, 마스크를 벗겨 확인하고 119가 아닌 담임에게 전화를 건다.

영화에서는 묘사된 모든 인물과 장소 및 스쿨버스 장면 등은 가상이지만 영화 속 배우들은 실제 상황을 재현하려는 듯 몰입된 연기를 하고 있다.

주인공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며, 장미와 연우는 1인 2역을 소화했다.

영화제 심사위원장은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작품이지만, 음악도 잘 쓰고, 초반 구성도 좋더라"면서 "장애인은 외로움의 그림자야"라는 말이 묵직하게 와닿는다. /장은성 기자



다. 이런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영화제의 성과"라고 평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담당한 장애인인권연대 최현연 대표는 "영화에서 언급된 것처럼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그것은 출생부터 불행이고 슬픔"이라며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차별과 혐오 속에 고통과 눈물만 가득한 삶이고, 이후 죽음조차도 비극이라는 현실을 영화에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치즈과학고, 선진국 체험캠프 · 교내대회 개최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박강덕 교장)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선진국 체험캠프를 재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체험캠프는 23학년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지난 4~11일까지 뉴질랜드에서 진행했다.

이는 치즈 선진국인 뉴질랜드에서 치즈 제조방법 습득 및 치즈쇼 등을 통한 유통과정, 현지 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체험함으로써 치즈 전문인력으로 성장과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

체험캠프 참가학생들은 지난 17일 자체 발표대회를 통해 1,2등을 선발 여기에서 선발된 학생은 전교생 앞에서 선진국 체험캠프를 통한 경험과 느낀 점을 공유한다.

한편 오는 23일 열리는 2023 한국치즈과학고 선진국 체험캠프 보고회 및 교내대회(임실축제)는 임실군수, 임실교육장, 운영위원, 동창회장, 수자원공사 지사장, 관내 중학교 교장 등을 초청해 진행할 예정이다.

임실에(愛)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 대회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았으며, 예산을 통해 선발된 4개팀이 참가한다. /장은성 기자



2023학년도 '임실에(愛)' 주제는 치즈와 고추장을 이용한 조리, 제과제빵으로 학생들이 관련 분야에서 쌓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강덕 교장은 "이번 행사에 도움을 준 임실군 수자원공사 지사장, 운영위원회, 동창회 등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노암동, 여수 화양면과 자매결연 추진

남원시 노암동 주민자치발전협의회는 지난 17일 여수시 화양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교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양 지역이 자매결연을 앞두고 양측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내용, 교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지역축에 초청 및 방문 농·특산물 판매행사, 고향 사랑기부금 상회기탁, 농촌일손돕기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 뜻을 모았다.

임점숙 노암동장은 "여수시 화양면 주민자치회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12월 중 남원시로 초청하겠다고 밝히며, 협력사업을 통해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천면, 경주 내남면 자매결연 초청 교류

남원시 주천면은 지난 17일, 자매결연 도시인 경북 경주시 내남면 주민을 초청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 주천면과 경주시 내남면은 2000년 자매결연 후 해마다 왕래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 올해 양 지역의 적극적인 의지로 다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행사는 남원시립농악단 환영 공연과 전경기 시의회 의장 축하인사 및 양 지역 특산품을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국악의 성지, 지리산 허브밸리 등 남원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며 우정을 돈독히 하였다.

최창호 발전협의회장은 "4년만에 다시 교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양 지역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노력하자"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교대, 직원 워크숍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3일과, 16~17일 두차례에 걸쳐 여수, 광양 일원에서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일하면서 느끼는 경직적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세대간 이해와 공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첫날 직원 협업 프로그램은 팀장 워크숍에서 논의된 네 학발전방안 모색 및 부서 간 협력 의제"를 주제로 실무자간 의견을 공유하고, 대학별전을 위한 직원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둘째 날에는 광양 백운산 삼나무 숲길 탐방을 통해 숲의 자원이 주는 혜택 이해하기, 명상 및 스트레칭 등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박병춘 총장은 "직원 워크숍을 통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고 직원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부서 간 세대 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 사회복지협, 순간온수기 · 사랑의 연료 전달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이하 협의회)는 20일 북부 마이산 돼지공원 광장에서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 순간온수기 및 사랑의 연료 지원을 위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으로 한파 및 폭설에 취약한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50가구에 등유, 연탄, 장작을 지원하고, 운수 사용이 어려운 30가구에 순간온수기를 설치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용품들을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진춘성 군수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난방에 취약한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주민들이 행복한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진안군 소재 쌍봉사(주지 보경스님)가 후원한 백미 10kg 50포에 대한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고, 진안경찰서 주현우 서장의 지팡이 회원들이 난방 연료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10,000장과 진안 제일약국(대표 약사 서예영)에서 관내 복지시설에 써달라며 구충제 2,000정을 후원하는 등 훈훈한 나눔의 정이 이어졌다. /진안=우태만기자



김정학 늘푸른 대표, 진안사랑재단 장학금 기탁

진안사랑재단(이사장 전춘성)은 20일 군수실에서 관내 알가공식품 전문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늘푸른(대표 김정학)에서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정학 대표는 "진안군을 뿌리 삼아 성장한 학생들이 훗날 진안군을 이끌어나갈 지역인재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진안사랑재단이 힘써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은 "항상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주)늘푸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주시는 장학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매출 100억원을 달성한 (주)늘푸른은 진안흥심한방산업단지 제2공장을 준공하고, 최근 농협 식품과 계약하며 소비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구운계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진안=우태만기자